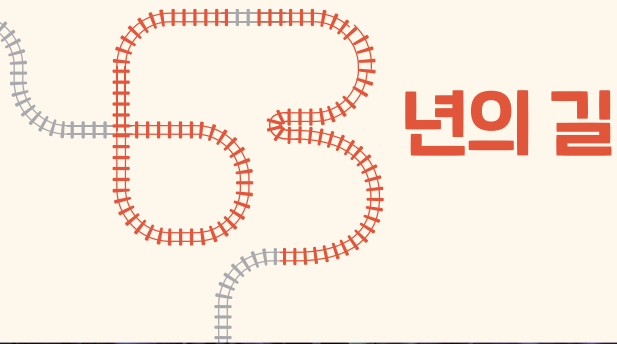


『위문열차』가 달려온



매주 일요일 낮 12시, KFN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한 마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그렇다. <위문열차>는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는 커다란 주축
이자 통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응원단으로 63년을 달려온
<위문열차>를 들여다본다.

자료 제공. KFN 위문열차팀 / 정리.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2024년 7월 25일 공군 제38전대를 방문한 <위문열차>



공개방송의 효시이자 최장수 공개방송

1961년 10월 23일, 대망의 기적을 올린 <위문열차>는 올해로 63년의 역사를 쓰고 있다. 관객을 앞에 두고 방송의 진행 과정과 상황을 보여주는 공개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방송이라는 점,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작된 점, 당대 최고의 가수와 배우, 희극인 등 수많은 대중예술인이 출연한 점 등에서 <위문열차>의 역사는 주목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2,500회 공연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장수 공개방송(2010년 기준)으로 한국기록원에 올랐고, 현재까지 3,000여 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위문열차>의 의미와 중량감이 깊이 새겨볼 만한 것이다.



2019년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열창한 노브레인



2022년 7월 12일 3,000회 특집공연

장병마의

분단국가의 국군으로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국군 장병들에게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꽤 짜릿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공연을 보며 뜨거운 젊음을 불사르던 국군장병들뿐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공연의 현장을 접한 국민에게도 <위문열차>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하니 방송 매체의 보급이 부족했던 시절, <위문열차>는 국민에게도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방송 초창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위문열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장병들을 찾아가며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전쟁이 한창인 타국에서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던 장병들에게 고향을 느낄 수 있는 무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할 노래, 그리고 포복절도할 공트를 보여주는 <위문열차>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가늠해보자면 실로 대단한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하다.



장병들의 장기자랑 시간



시대에 흐름에 발맞춰
달려온 <위문열차>

<위문열차>의 나이, 63.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사람의 나이로 환갑이 넘었으니 한사람이 탄생하고,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며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련의 과정을 이미 겪은 사람의 일생과도 같은 셈이다. <위문열차>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양새를 달리해 왔다.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출발한 <위문열차>는 컬러TV시대를 맞이하며 TV공개방송으로 전환했다. 컬러TV가 요구하는 고퀄리티의 영상과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이어 KFN-



파월장병 위문공연

1970년대 공연 장면



김세레나 맹호부대 위문공연



MC 송해와 가수 이미자의
백마부대 위문공연



베트남 광나이성
추라이 해변여단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61년 10월 23일, 구 국회의사당 앞
'코리아 헤럴드' 건물 내에 있던
KBS 공개홀에서 첫 포문을 연 <위문열차>



사회를 본 코미디언 서영춘



가수 전영록



가수 김수철



가수 조용필



TV 개국에 맞춰 본격적인 음악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일방적인 관람이 아닌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자랑 코너가 생겨나며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며 시대의 흐름을 느끼게 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더믹의 시기에는 장병들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쌍방향 랜선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위문열차>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 2년여간 아쉽게나마 공연을 유지해 온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군 장병의 니즈에 발맞춰 메타버스 형식의 공연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 <위문열차>와 함께하는 국군 장병들이 이른바 MZ라 불리는 세대임을 감안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위문열차>가 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1999년 5월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2,000회 기념 특집공연



가수 박진영



걸그룹 씨스타



걸그룹 A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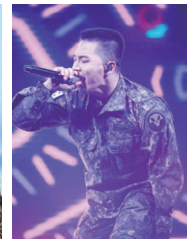
걸그룹 오마이걸



가수 박호신



가수 태양



려욱, 건일, 주원, 임시완, 도상우,
이장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03년 <위문열차>
홍보대사 걸그룹 주얼리



2003년 <위문열차>
홍보대사 가수 장나라



2007년 육군 제52보병사단을 방문한
걸그룹 소녀시대



에너지를 주러 왔다가
에너지를 받고 가요

<위문열차>의 상징은 국군장병들의 뜨거운 함성에 있다. 출연자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쏟아내는 함성의 카타르시스는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상황이 이러하니 <위문열차>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에너지를 주러 왔다가 오히려 저희가 받고 갑니다”

자신들의 팬 앞에서 예상된 환호를 받는 것과는 달리 가능할 수 없는 대상들의 뜨거운 환호는 서프라이즈의 느낌이며, 20대 초반의 장병들의 함성 데시벨(Decibel)은 가장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닐지... 최근 해병대 교육훈련단 1308기 공연 때 출연한 6팀 모두가 함성에 놀라며 감격한 모습은 생생하다.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함성은 그저 젊은 사내들의 힘 있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애국심을 기본으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사명의식 그리고, 고된 훈련과 외로움 등이 응집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들 나름의 의식일지도 모른다. 현재 <위문열차>의 진행자인 권재관(개그맨), 유정(걸그룹 라붐 출신의 가수) 역시 함성의 데시벨이 높을수록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한다.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행복하고 즐거운 병영 생활을 위해 제작된 <위문열차>가 오히려 국군 장병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닐까?



**톱스타로 발돋움한
브브걸(브레이브걸스),
QWER까지**

<위문열차>가 63년을 달려오는 시간 동안 탑승했던 출연자 수는 얼마나 될까? 세어 보자니 그 수가 너무도 방대해 일단 포기.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가요계의 내로라하는 가수들은 모두 <위문열차>에 탑승했다. 1960년대에서 이미자, 나훈아, 남진 외에도 최고의 희극인인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등이 무대에 섰고, 이후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 전영록, 정수라, 김수희 등도 출연했다. 이후 국내 음악시장이 다양화되며 일반 가요뿐 아니라 락, 랩, 클래식, 트로트까지 총망라된 음악 장르가 선보이고 있다.



<위문열차>를 통해 톱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해병대 (백령도) 공연 당시 장병 장기자랑 코너에서 장병들이 부른 '롤린'이 유튜브 영상을 타고 조회 수 7백2십여만 회(2021년 11월 기준)를 기록, 사상 초유의 역주행 역사를 쓰기도 했다. 물론 브브걸은 이전에도 군부대에서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었으나 2021년 해병대 공연을 계기로 해체위기에서 최고 인기 걸그룹으로 거듭나며 <위문열차> 최다 공연기록을 세웠다.



또한 2024년 가장 핫한 걸밴드 QWER도 <위문열차> 출연진 목록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3년 10월 결성된 QWER의 <위문열차> 출연 횟수는 2024년 9월 말 기준, 10회다. 연간 총 40회의 공연 중 10회는 상당한 횟수이다. QWER이 어느 매체에서 했던 “<위문열차> 출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병들의 함성이 너무 좋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짐작하겠지만 국군 장병들의 남다른 환호와 공연에 대한 진심은 스타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고 있다.

현재, 부대의 신청을 받아 연간 40회 공연으로 제작되는 <위문열차>.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국군 장병들이 원하는 많은 출연진을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대에는 언제 오는지 궁금해지는 <위문열차>가 되기 위해 모든 제작진 및 스태프들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